

지역 매 아 리

고창로컬잡센터 - 고창농협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체결

고창로컬잡(COJ)센터(센터장 김희진)가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과 고창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장 김희진 센터장과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지난달 31일 고창농협 회의실에서 '고창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향후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 및 일자리 정보제공,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창농협은 군내 본점을 포함해 6개의 지점과 하나마트 등 4개 사무소가 운영되고 140여명이 종사 중이다. 고창농협은 군내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작목반 운영지원, 생산기술 이전 등 영농 기술교육 지원과 농촌 문화 활동, 농가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농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고창농협은 신용사업을 비롯한 유통, 복분자, 고춧가루 가공 사업을 통해 군민과 조합원들의 신뢰받는 농협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각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로컬잡센터와 협력을 통해 군민과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시청 아라바이트
참여 학생과 소통의 장 마련

정읍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청 하계 아라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100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2019 대학생 하계 아라바이트'는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직체験의 기회와 자기계발에 필요한 재정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간담회는 미래 정읍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의 시정 체験 소감을 청취하고 아라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 기간 동안 느꼈던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했다.

이번 대학생 아라바이트 사업에는 총 100명이 참여해 한 달간 행정기록물 관리와 대민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활동, 국민여가캠핑장 업무 등을 지원하며 정읍시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청 공동체과에서 근무한 박시은 학생은 "이번 아라바이트를 통해 그동안 고향 정읍에 관심이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지역과 주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지역발전에 힘쓰고 정읍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폭염, 이렇게 관리하세요”

정읍농기센터, 농작물·건강 관리 주의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관리와 농작업 안전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비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잎집무늬마름병과 개시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한다. 물 흘러대기로 온도상승 역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또 최근 병해충 예찰 결과 먹노린재 밀도가 높아 병해충 적기 종합방제를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밭작물은 관수를 실시해 토양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짚과 풀, 퇴비로 토양을 피복해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 폭염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야 한다.

시설채소류는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특히 하우스 인이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지 채소류는 인공관수로 토양수분을 유지하고 생육부진 시 엽면시비를 실시한다. 과수는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일소과(햇빛태움)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

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늘어지도록 배치한다. 일소 피해가 많은 과수원에서는 미세살수, 탄산칼슘을 살포하거나 주기적으로 관수해야 한다.

축사에서는 축사 내부의 온도상승 역제를 위해 단열재나 차광막, 환기창 또는 통풍창을 설치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센터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작물에 맞는 적절한 농작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폭염특보 상황에서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고,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제1회 읍민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부안군 부안읍(박연기 읍장)은 제1회 부안읍민의 날 개최를 위해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부안읍은 이번 회의를 통해 50명의 추진위원을 확정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박연기 부안읍장과 김재희 이장협의회장이 선출됐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이태근·이강세·장은하 부안군의원, 한홍·김현철 전 부안읍장, 김옥길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추대됐다.

추진위원회의 핵심역할을 할 심의위

원회는 위원장 2명, 자문위원 6명, 부위원장 4명, 사무국장, 재무국장, 6개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 임원들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부안읍민의 날 준비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부안읍장의 직급은 지난 7월부터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격됐고 박연기 읍장은 최초의 지방서기관 읍장이 됐다.

읍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이번 읍민의 날 행사를 통해 읍장의 직급 승격 만큼 2만 1000여명 부안읍민들의 자

긍심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는 10월 1일 개최하는 부안읍민의 날은 부안읍 승격 76년 만에 개최하는 첫 행사이다.

박연기 부안읍장은 "이번 제1회 읍민의 날 행사는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주민화합의 장이자 경로위안잔치로 출향민들의 애郷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자매도시 광명시 방문 양파 직거래행사 개최... “양파농가 힘내세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일 자매도시인 경기도 광명시청 앞 주차장에서 열린 '자매도시 부안군 양파 팔아주기 행사'에서 부안양파 15톤(980방, 15kg기준)을 직송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양파 판매부진과 양파값 하락에 따른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자매도시 간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명시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국·과 간부들이 이재원 부안군 산업건설국장과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등 민·관 방담단을 환영했다.

이재원 부안군 산업건설국장은 "가 격하락과 관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시청 직원들의 자율적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준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지금까지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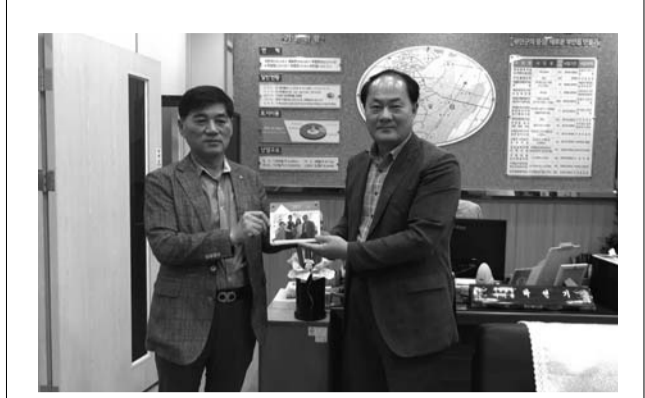
부안군이 1일 자매도시인 경기도 광명시청 앞 주차장에서 열린 '자매도시 부안군 양파 팔아주기 행사'에서 부안양파 15톤을 직송 판매했다.

직거래 행사와 문화교류 등으로 쌓아온 양 도시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문화·경제 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으로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과 광명시는 지난 2016

년 7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교류와 직거래 장터를 열어 부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광명시민들에게 판매함은 물론 부안군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박연기 부안읍장에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회 착한가정 인증패를 전달했다.

“더불어 행복한 부안읍 되도록”

박연기 부안읍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증패 수여

박연기 부안군 부안읍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정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재희)는 최근 박연기 부안읍장에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정 인증패를 전달했다.

부안군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을 통해 착한가정은 매월 3만원 이상, 착한가정은 매월 20만원 이상 지역주민을 위해 기부하는 사업장 및 가정을 선정해 현관 및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매월 모금된 기부금은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긴급구호

비, 의료비, 주거비,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있다.

박연기 읍장은 본인 먼저 가입하고 주변에 권유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박연기 읍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속에서도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부동참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안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읍 체리 GAP 인증 추진으로 경쟁력 확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체리 연구회 회원들이 정읍 체리의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체리는 딸기의 6배, 사과 20배에 달하는 철분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노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영양이 풍부해 '과일의 다이아몬드'로 불린다.

특히 국내산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방부제나 화학첨가물이 적고 식감이 부드럽다. 맛과 향이 조화로워 정읍지역에서 현재 11ha를 재배 중이고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1일 정읍 체리 연구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체리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의 일환으로 정읍 체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GAP 인증 기본교육과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SC 농업발전연구소 이기승 대표가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출하·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성 확보에 대해 교육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오성희 과수팀장은 체리 수확 후 관리기술과 PLG(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센터는 정읍 체리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정교육을 진행하고 수확기에는 품평회를 가지는 등 체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재배기반 조성, 품질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체리 고급화 전략과 함께 맞춤형 농업기술지도 등을 통해 고소득작목으로서 농가 경제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GAP 인증을 받아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descriptions.